

기관 없는 신체와 탈영토화 된 패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철학적, 사회학적 신체 담론과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

양희영<sup>†\*</sup> · 이명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Critical Study ab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ody without Organ  
and Blurring Boundary Fashion**  
- Focusing on Philosophical and Sociological Discourses about the Body and the Desire -

**Hee-Young Yang<sup>†\*</sup> and Myung-Hee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0. 4. 19. 접수일 : 2010. 6. 7. 수정완료일 : 2010. 10. 6. 게재확정일)

**Abstract**

In 21st century, subordinated relationship of fashion from the body has been disappearing, and fashion is understood as variable and creative field. This research aims at analys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and fashion depending on the theories about the authority and the desire. So, this utilizes between theoretical study and empirical analysis. For concentrated study, research period limits from 2000 to the present time 2010. Contemporary body and fashion have being changed into various forms and values, become complex and de-territory. Especially, body is symbol of ambivalence eroticism that gives point to sexual property, and the object of fetishism and machine having a desire. This study's purpose draw a parallel with between the limits of contemporary body that couldn't be rid of the capital and desire, and the liberty of fashion that escape from the body's influence has being changed independent and fluid space. This research's results are as follow as; contemporary de-territory fashion is expressed as 1) symbol of the object and physical material property, 2) self-transcendental instrument fashion, 3) independent spatial molding, 4) de-centering fashion.

*Key words: physical material property(신체적 물성), self-transcendence(자기 초월), independent spatial molding(독립적 공간 조형), decentering(탈중심), de-territory(탈영토).*

I. 서론

산업사회 이후 자본주의는 모더니즘, 포스트모더

니즘, 수퍼모더니즘 등으로 진화하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비의 대상을 확장시키며, 소비 자체를 신격화시키고 있다. 패션 또한 미적이고 예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비주의와 결합하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51-C00182).

<sup>†</sup> 교신저자 E-mail : hyyang870927@yahoo.co.kr

여 다양한 방식을 실험하고 변화하며 스스로를 진화시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넘어 탈영토화하고 있다. 패션에서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신체 또한 권력에 순응하고 이성에 복종하는 수동적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권력과 계급을 생성하고, 새로운 소비를 생산하는 미적이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대상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제 신체는 자아의 개인적 욕망의 장에서 벗어나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욕망과 권력을 표출하고 상징하는 함의체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철학적, 사회학적 이론을 토대로 한 다양한 복합체로서의 신체와 패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신체와 패션에 대한 선행 연구들도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다양한 사회학자, 철학자들의 신체 개념을 바탕으로 20세기 이후 달라진 신체의 위상과 이를 바탕으로 변화되어진 신체 이미지와 패션의 형태와 조형성, 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sup>1)</sup>. 또한, 신체의 은유나 확장으로만 해석되던 전통적인 패션관을 탈피해 신체와의 관련성 속에서만 고찰되던 패션 본래의 형태나 구성, 기능을 벗어나 건축적 공간, 조형적 공간으로 확장되는 패션에 대한 연구<sup>2)</sup>나 변형되거나 조합되어진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를 드러내는 패션 디자인에 대한 연구<sup>3)</sup>, 신체에서 벗어나 반형태나 물질성, 무정형성을 드러내

는 패션디자인<sup>4)</sup>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소비를 중심으로 한 현대 권력이나 욕망의 변화가 신체 개념이나 패션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정신으로부터 독립되어 인간과 사회, 문화를 상징하는 기표로서의 신체가 오히려 물질과 욕망, 권력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는 현상과 종래의 신체의 재현 기능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신체를 도구화시키는 21세기 패션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개인적, 집단적 소비와 사회, 문화적 권력과 욕망의 변화를 바탕으로 다변화되고 탈영토화 되는 신체와 패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본과 욕망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 신체의 한계와 신체의 공간과 영역으로부터 탈주해 독립적이고 유동적인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는 패션의 자율성을 비교 분석하여,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진 자율적인 신체로 현대의 패션 개념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각각의 경계를 해체하고 자율적인 부분으로 확장되어지는, 적극적이고 유동적이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생성하는 상징적인 대상으로 신체를 인지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나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의 신체이론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현대의 탈중심적이고, 탈

- 
- 1) 권기영, 조필교, “현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신체이미지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8권 5호 (2000).  
이민선,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김은희, “복식에 표현된 여성의 몸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이신영, 김혜영,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몸’ 양식의 탈고정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복식* 53권 1호 (2003).  
양희영, 양숙희, “현대 광고에 나타난 남성 신체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권 2호 (2006).  
임은희, “복식에 표현된 몸의 재현성과 비재현성,” *복식문화연구* 15권 4호 (2007).
  - 2) 박현신, “20세기 후반 패션의 신체 부재와 탈재현 현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이신영, 김혜영,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몸’ 양식의 탈고정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복식* 53권 1호 (2003).  
권정숙,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의 표현형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권 3호 (2004).  
양희영, 양숙희,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건축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복식* 56권 7호 (2006).  
임은희, “탈신체적 패션디자인에 관한 고찰-몸과 유리된 고정공간의 형성을 중심으로,” *복식* 57권 4호 (2007).  
양희영, 양숙희, “21세기 복합적인 패션공간에 나타난 탈경계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7권 4호 (2009).  
박신미, 이재정, “20세기 패션디자인의 건축적 패러다임 특성 고찰,” *복식* 58권 2호 (2008).
  - 3) 허정선, 김기숙, “패션아트에 나타난 몸의 왜곡과 변형,” *복식* 54권 4호 (2004).  
임은희,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의 미학: 몸의 평면화를 중심으로,” *복식* 57권 1호 (2007).  
임은희, “현대 패션에 표현된 몸의 파편화,” *복식* 57권 6호 (2007).  
최유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이미지에 대한 연구,” *복식* 59권 9호 (2009).
  - 4) 윤수정, 김민자, “순수미술과 패션속의 물질성의 표현과 무정형성 경향,” *복식* 57권 6호 (2007).

구조적인 패션 현상을 탈영토화의 개념과 관련지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신체와 패션 사이의 관계를 지배와 차별, 그리고 소외구조를 넘어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지향하는 탈영토화<sup>5)</sup>의 리즘(rhizome)<sup>6)</sup>적 사유로의 변화로 인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철학적, 사회학적 신체담론이나 욕망 이론과 관련된 문헌이나 선행 논문 분석, 패션 관련 서적이나 선행 논문 자료, 인터넷 자료, 신문기사 등의 문헌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 수행하고, 실증 자료 분석은 패션 관련 서적, 인터넷 사이트, 패션 잡지(Marie clare) 등에서 추출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acQueen), 폼므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 빅터 앤 롤프(Victor & Rolf), 입생로랑(YSL), 가레스 퓨(Gareth Pugh),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2000~2010년 콜렉션 자료(총 5,707개 자료 중 관련 자료 638개 추출)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상기의 디자이너 작품들은 신체의 재현성, 파편성, 확장성으로서의 특성과 신체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공간 조형성이나 미적 특성이 특히 두드러져 나타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연구 시기를 2000년대 이후부터로 제한한 것은 이때부터 사회적 계급, 정치적 권력, 예술, 문화적 현상들이 상호 밀접히 관련되면서 권력이나 자본, 욕망과 소비가 관련되어 활용할 수 있는 사진 자료가 풍부하여 연구자의 논지를 입증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와 다음과 같다.

- 5)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탈영토화는 분리, 경계를 상징하는 영토의 개념을 벗어나서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이한 분야와 결합하거나 이들의 특성을 수용함으로써 종래의 기능과 목적을 보다 확장시키려는 확대의 의미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보다 복합적 다원적인 확장 개념으로 탈영토화를 설명하기 위해 위계성, 방향성, 목적성이 없는 다방향적이고 복합관계적인 리즘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연구자로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확장, 확대되어가는 과정적 사유로 탈영토화의 개념을 수용, 이를 패션의 변화와 진화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 6) 리즘: 줄기가 뿌리인 식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중심을 가지지 않는 이질적인 선들이 상호 교차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연결과 결합, 재생산을 의미한다. 양희영, 양숙희, “21세기 복합적인 패션공간에 나타난 탈경계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7권 4호 (2009), p. 67.

1. 권력이나 욕망과 관련된 신체담론과, 들뢰즈와 가타리의 신체이론은 무엇인가?

2. 소비 욕망과 관련하여 자본화 되어진 현대의 신체적 특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패션의 변화는 무엇인가?

3. 신체와의 종속적, 상보적, 독립적 관계를 형성하며,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현대 패션의 탈영토화된 특성은 무엇인가?

## II. 신체에 관한 철학적, 사회학적 담론

연구자는 신체에 대한 인식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신체를 수단화하는 것과 욕망과 관련된 신체로 양분하여 신체담론을 고찰하였는데, 수단으로서의 신체가 외적 요인들과의 관련성(권력의 수용과 생산, 육체 자본)을 통한 고찰이었다면, 욕망과 관련된 신체는 인간의 무의식이나 내적 요인과 관련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19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체가 외적, 내적 요인들과 상호 결합하여 다양한 문화, 권력, 욕망, 자본들과 어떤 관련성을 맺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를 위해 자본화되어가는 현대의 신체를 신체의 수동성과 능동성 개념에 근거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신체이론을 통해 고찰하였다.

### 1. 권력, 자본의 수단으로서의 신체

미셸 푸코의 초기 연구는 인간을 권력관계의 산물로 생각하였는데, 개인이나 사회를 권력관계의 구성체로 보고 그 중 개인은 권력 상호작용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후기 연구에서는 타자적 권력에 의한 획일적 자아나 신체가 아닌 주체 스스로에 의해 관리되는 신체를 상정한다. 이러

한 신체는 외부적 권력이 아닌 내적 주체에 의한 자율적 강제나 훈육이 성립하여 주체와 객체를 모두 개인의 신체<sup>7)</sup>로 지정하고 있다<sup>8)</sup>. 이것은 기존의 성별 대립적 구도의 신체에서 벗어나 미시 권력의 차원에서 신체를 논의하는 것으로, 남성에 대한 여성, 이성에 대한 물질로서의 억압되어진 실체가 아니라 권력의 ‘생산적 과정’으로서의 신체이다. 그는 근대 이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 단서로서 신체를 상징하였고, 이에 작용하는 권력개념을 통해 신체 규제와 관련된 미시정치의 작동기제를 규명하였다. 즉, 신체는 권력이 각인되는 표면이고, 성은 권력을 구성하는 도구이면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권력에 억압 당한 신체의 복귀 전략 또한 성에 있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그는 이러한 고찰을 통해 신체를 고정되거나 수동적이지 않은 새로운 권력<sup>10)</sup>을 생산하는 긍정적인 대상으로 인지하였다.

반면, 피에르 부르디외는 경제적 상황을 관련지어 권력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소비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계급적 구조의 지속적 재생산이 가능한 이유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상징적 자본인 신체로 상징하고, 자연적인 신체를 이러한 자본의 한 형태로 위치 지워 사회적 불평등을 존속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였다<sup>11)</sup>. 신체는 계급의 상징물이며 신체자본으로서, 새로운 취향 계발과 같은 자본화 행위를 통해 계급의 재생산 과정이 이루어지며, 자본화 행위에는 사회적 봉사나 자연적인 것으로 수용하게끔 하는 오인(mis-recognition)이

작동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개발과 운용은 사회적 지위 획득과 차별화 과정의 중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sup>12)</sup> 사회, 문화적으로 용인된 이상적인 신체미를 획득하기 위한 신체관리는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상위계층의 소속이라는 보상을 전제로 개인이 신체에 자율적으로 행하는 자본주의적 통제방식을 잘 보여준다.

## 2. 욕망과 관련된 신체

신체에 관한 논의는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자, 권력과 자본 등과 결합되어 외적이든 내적이든 욕망과 관련되어진다. 프랑스의 철학자 료타르(Jean-Francois Lyotard)는 ‘진정으로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욕망이며, 욕망의 표류가 제도를 변화시킨다고 하였고<sup>13)</sup>, 이민선은 권력이 욕망을 이끌어내고 미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이를 신체와 패션에 포함함으로써 이데올로기를 전파시킨다고 하였다<sup>14)</sup>.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계승한 합리론자로서,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근거를 정신과 신체로 이원화 시키지 않고 자체의 자율적인 무한한 변용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자기보존과 생성의 욕망을 통해 능동적인 변용 능력을 가진 부분들이 결합되어진 결합체를 신체로 인식하였다<sup>15)</sup>. 이는 미리 주어진 특정 형식으로서의 신체가 아니라 변용의 역량에 따라 자기보존의 능력을 증대, 감소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욕망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외부 신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욕망은 선형적으로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를 통해

7) 푸코의 몸은 강제적 규율을 스스로 생산하는 ‘몸주체’와 이를 수용하여 관리, 감독, 훈육 당하는 ‘몸객체’로서 모두 한 개인의 몸에 통합되어 있다. 즉,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시적 권력관계가 아닌 사회, 문화, 정치적 변동 요인에 의해 스스로 적합한 욕망과 규율을 생산하고, 이를 스스로의 몸에 적용하는 미시적 권력으로서의 몸이다.

니체는 이러한 신체를 변화와 관련된 욕망에 기초하여, 인간을 변화의 욕망을 일으키는 주체이자 변화되어지는 객체가 혼합되어진 복합적인 존재로 이해하였다.

8) 김선희, “여성주의와 니체, 그리고 푸코의 새로운 만남,” *한국여성철학* 7권 (2007), pp.34-41.

9) 양희영, 양숙희, “현대 광고에 나타난 남성신체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권 2호 (2006), p. 328.

10) 이때의 권력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감춘 채 욕망을 자극하며 부드럽고 생산적인 형태로 작동한다. J. Butler, *Foucault and the Paradox of Bodily Inscription*, (New York: Malden Press, 1999), p. 53.

11) 박현신, “20세기 후반 패션의 신체 부재와 탈재현 현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 28.

12) 김은희, “복식에 표현된 여성의 몸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 83.

13) 이광래, *미셀 푸코* (서울: 민음사, 1995), p. 16.

14) 이민선,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 6.

15) B. Etienne, *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역, (서울: 이제이북스, 2005), p. 114.

능동성이 증대되어 주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신체 결정론적인 논의를 거부하며, 자유인의 자기 결정적(self-determination)인 내재적 역능(force)인 ‘자율적 욕망’을 통한 ‘자율적 신체’를 강조하였다. 스피노자는 자기보존의 노력이 정신과 관계하면 의지이고, 정신과 신체 양자에 모두 관계하면 충동이라 하여 이를 코나투스(conatus)라 명명하였다<sup>16)</sup>.

반면, 라캉은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초월성을 외부에 상징하여 인간이 욕망하면 할수록 더욱 더 결핍의 암흑으로 빠져든다는 ‘결핍으로의 욕망’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전개하였다. 그는 최대의 욕망을 죽음으로써만 인지할 수 있는 신적 영역에 들어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대타자의 욕망이론을 완성하였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 주체의 향유에 도달할 수 없는 좌절된 욕망을 설명하고 있다. 들뢰즈는 라캉의 욕망이론은 부르주아적 시민사회의 욕망양식을 구조적

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sup>17)</sup>, 즉 가부장적인 부르주아 사회가 대타자로서 욕망을 생산하고 향유하며 타자로서의 개인의 신체는 이러한 욕망을 수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라캉의 욕망 개념에서 신체는 욕망에 의한 충동들을 스스로 조직할 힘이 없는 분절되고 파편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신체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에 대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보충해 주는 자본주의의 소비 욕구와 조우하게 되고, 결핍으로서의 욕망을 소비를 통한 쾌락으로 상쇄시키려 하게 된다. <표 1>은 수단으로서의 신체와 욕망으로서의 신체에 대한 담론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 3. 들뢰즈와 가타리의 신체론

1) 기관(Organ) 없는 신체와 추상기계의 ‘-되기’  
 들뢰즈와 가타리의 욕망은 라캉의 욕망과 달리,

<표 1> 신체와 수단, 욕망과의 관련성

구분	학자	신체에 대한 인식	신체의 의미	신체의 기능과 역할
수단으로서의 신체	미셸 푸코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생산하는 ‘미시권력’의 장	-인간이란 권력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신체는 권력이 투사되고 생산되는 장치 -신체 자체가 권력인 ‘생체 권력’ 형성	-전기: 유순한 신체 - 외부적 권력에 순응하는 신체(권력 관계의 객체) -후기: 자율적 신체 - 신체가 자율적으로 권력 생산(권력 관계의 객체&주체) * 권력의 생산 수단
	브리디 외	사회적 불평등을 존속시키는 요소	-신체 자본: 신체를 통해 자본과 결합된 권력의 효과 설명	-계급구조를 지속시키는 권력의 재생산 -사회적 이상미는 경제적 보상을 매개로 자발적 신체관리를 유도 * 자본의 생산 수단
욕망과 관련된 신체	스피노자	능동적인 반응능력을 가진 부분들의 집합체	생산하는 욕망 코나투스: 정신과 신체 모두에 관련된 자기보존의 노력인 충동으로 긍정적인 힘	-자기보존의 노력인 코나투스와 생산하는 욕망이 결합하여 외부 신체를 변화 * 자발적 욕망
	자크 라캉	욕망 충동을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없는 분절되고 파편화된 존재	외부의 초월적인 구조(대타자)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빈틈과 간극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인 타자	-지속적인 소비를 통한 쾌락으로 결핍으로서의 욕망을 보충 * 수동적 욕망

16) 전경갑, *욕망의 통제와 탈주: 스피노자에서 들뢰즈까지*, (서울: 한길사, 1999), pp. 38-41.

17) 오생근, “테카르트, 푸코, 들뢰즈의 육체,” *성평등연구* 9권 (2005), p. 486.

대상의 부재나 결핍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리비도와 같은 에너지 흐름으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미를 가지며, 충동적이고 목적도 원인도 없는 욕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며, 자아의 통일성을 부정하는 탈중심적 자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코드의 구속에서 벗어나 분열적 흐름을 생산하고, 영토의 경계를 벗어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반복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탈주의 선을 지향한다. 자율적인 무한한 욕망은 자체의 내재적 힘에 의해 기관 없는 신체를 생산하는데, 이것은 자율적인 부분충동으로 이루어진 이접(disjunction)적 종합체<sup>18)</sup>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스피노자의 ‘욕망과 신체론’을 계승하여 「천개의 고원」<sup>19)</sup>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변화되어온 신체를 텅 빈 신체, 암적 신체, 기관 없는 신체로 분류하였다. 그들은 신체와 기관이 미리 필연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조직화된 신체 개념에 반대하기 위해 초현실주의 예술가 아르토(Antoin Artaud)의 ‘신체는 신체이다. 이들은 결코 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기체<sup>20)</sup>는 신체의 적이다’라고 하는 기관 없는 신체 개념을 빌려왔다<sup>21)</sup>.

기관 없는 신체는 단순히 기관을 없앤 신체가 아니라 특정 형태로 한정되지 않은, 보다 폭넓은 변용의 역량을 가진 신체를 의미하며, 스피노자의 변용 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자유인의 신체이다<sup>22)</sup>. 즉, 이것은 생성하는 욕망에 의해 기관 없는 신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단절, 접속, 분열, 생산하는 자유로운 기계이다. 이들이 자율적인 가변적 존재로서 신체를 규정함에 있어서 기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계라는 의미보다는 기계의 자율적인 사용과 변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sup>23)</sup>, 자연물은 외부의 이질적인 대상을 만나 다양한 양태로 변용될 수 있는 능력인 ‘추상기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의 변용태가 기계라고 규정하였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sup>24)</sup>는 이러한 추상기계 작동의 결과물인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변용태를 생산할 수 있는 기관 없는 신체는 분열증적 주체<sup>25)</sup>이고 목적이나 종착점 없이 이질적인 대상과 지속적으로 결합하고 확장할 수 있는 리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자본화 되어진 욕망하는 기계와 얼굴성 기계 그리고 독신 기계**

18) 이접은 차이와 차별을 드러내는 접속관계로 형태와 크기, 구조가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상호 어긋나면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접적 종합체로서의 신체는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하는 복합체를 의미한다.

19) G, Deleuze and F. Guattari,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서울: 새물결, 2003), pp. 287-320.

20) 조직화되어진 유기체적인 신체는 기관과 신체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신체의 새로운 변화능력을 발견할 수 없다. 즉, 이것은 국가나 기관들에 의해 구분되고 분화되어진 신체로 사회적 위계와 차별이 존재하는 신체이다. 그러나 기관없는 신체는 기관과 신체 사이의 통일성이나 필연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보존과 생성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고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가상공간이다.

21) 오생근, *op. cit.*, p. 491.

22) 세계는 유동하는 몸들과 사물들의 유동하는 짜임새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때 짜임새는 본래부터 일정하게 결정된 것이 아닌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생겨난다. 또한, 이것은 평면적인 것들의 연결이 아닌 입체적인 것들의 포개어지므로 형성됨으로 비구조, 무형태를 기본으로 씬 없이 운동한다. 운동은 지속적인 움직임에 의해 자기 존재 원리를 자신 속에서 찾지 못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찾게 되고, 따라서 씬 없이 타자를 향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탈영토화를 추구하며, 여기에서 자기초월성이 나타난다.

조광제, “몸, 역망 그리고 권력,” *한국철학사상연구* 4권 3호 (1993), pp. 183-186.

23) 오생근, *op. cit.*, pp. 495-496.

기관 없는 신체에서는 신체의 변화를 통해 자기보존의 욕망을 무한히 생성하기 때문에 기관보다는 무한한 생성을 주도하는 기계들이 중요하다. 즉, 기계를 새로운 기관을 생성시킬 수 있는 근원인 변화로서 사유하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생성하는 욕망’이 ‘욕망하는 기계’로 변화하게 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기관 없는 신체를 욕망하는 기계를 무수히 만들어내는 내재성으로 파악하고, 이를 추상기계로 명명하였다. 즉, 추상기계의 자유로운 욕망은 신체나 기관을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생성시키며, 이때의 변화되어진 태가 기계이기 때문에 추상기계인 기관 없는 신체는 욕망하는 기계의 근원이 된다.

24) 양희영, 양숙희, “21세기 복합적인 패션 공간에 나타난 탈경계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7권 4호 (2009), p. 602.

양희영, 김소영, “바디페인팅을 이용한 광고에 나타난 되기(becoming) 현상,” *복식* 57권 7호 (2007), pp. 56-58.

자기보존의 힘으로서의 욕망이나 신체가 본래 자연의 영역을 벗어나 자연 이상의 것들, 즉 권력이나 자본을 자신의 형태로 삼으려고 하면서부터 신체는 권력, 자본을 자신 속에 구조화하게 된다. 권력이 자기 형태화 되어진 신체는 다른 신체들을 도구 삼아 자신의 욕망(비가시적인 신체)을 확장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통해 다른 신체들의 관계들을 본인의 관계망 내로 포섭하게 되고, 결국은 다른 신체를 지배하게 되는 권력을 창출하게 된다. 푸코가 주장한 ‘신체 관계의 미시망 혹은 미시적 권력’이란 특정한 가시적 신체가 다른 신체를 자신의 영역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비가시적인 관계망들을 통제하고 규제하여 결국은 가시적인 신체가 도구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체의 도구화가 자본과 결합되어지면 라캉의 대타자가 상정한 규율을 오인을 통해 자율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스스로의 신체에 강제하는 텅 빈 신체와 암적 신체가 나타나게 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국가 기관이나 전체적 규범에 의해 통제되어 강제와 명령에 따라 단순히 반응하는 능동성이 결여된 신체를 전체주의의 유기체적인 텅 빈 신체, 파시즘적인 암적 신체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신체는 자율적 창조와 생산이 불가능한 결여의 공간으로 인식하였다<sup>25)</sup>. 신체에 나타나는 권력인 ‘생체권력’은 한 인간의 신체(권력 주체)가 다른 인간의 신체(권력 객체)를 소재로 자신의 욕망에 맞게 다른 신체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이때 신체는 성과 지식의 이미지를 활용하게 된다. 신체가 가진 여러 관계망 중에서 권력이 이용하기에 짜임새의 간극이 가장 많은 부분이 성과 지식이다<sup>27)</sup>. 성은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신체를 소비를 위해 지속적인 생산을 야기하는 신체자본으로 상징하게 하였고, 지식은 예술과 결합하여 모든 소비 상품을 예

술화시키고 일상생활을 미학화 시켜 상품미학을 등장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이제 현대사회는 성과 지식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권력의 직접적인 개입을 은폐하고 이를 욕망으로 전환시킨다. 욕망을 유통시키는 수단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비가시적인 권력관계망은 빠르게 유통하며 자연적인 신체가 권력을 발견할 수 없도록 복잡해진다. 성과 지식의 이미지들은 권력망 곳곳에 잠재하며, 이것은 마치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왕성하게 활동하는 바이러스처럼 신체의 욕망을 조작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체의 자기 감시체계인 자발적 판옵티콘(panopticon)을 구조화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현대의 탐욕적인 자본주의를 ‘욕망하는 생산’으로 규정하였는데, 이것이 신체와 결합하면 ‘욕망하는 소비’로 변화되고, 이를 통해 신체를 자본화시킨다. 이때 신체는 결핍되어진 욕망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비를 통한 쾌락을 추구하는 텅 빈 신체이자 생산보다는 소비를 지향하는 암적 신체가 된다. 자본주의는 기관 없는 신체의 충만하고 연속적인 욕망의 흐름을 절단과 채취의 기계와 결합하여 동일반복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기계적 욕망으로 바꾸려 한다. 자본은 신체를 기계적 구조 속에 포함시켜 ‘욕망하는 기계’로 전환시키고, 신체가 스스로 욕망을 생성하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사실은 신체의 욕망을 절단하고 채취하는 기관으로 작용한다<sup>28)</sup>. 즉,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관 없는 신체가 자본과 결합하면 ‘욕망하는 기계’로 바뀌는데, 이것은 기관 없는 신체의 연속적이고 충만한 욕망의 흐름을 절단하고 생성하는 욕망의 힘을 채취하여 특정한 반복 형식으로 고착화시키는 구조화되고 기관에 종속된 신체를 의미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사회나 문화에 의해 규정되

25) 라캉은 결핍으로서의 욕망개념에서 완전함에 이를 수 없는 불완전한 신체를 상징하기 위해 신체의 부분 부분이 파편화되고 분절되어지며, 이러한 틈이 완전성을 이룰 수 없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들뢰즈와 가타리는 완전성이라는 기관으로부터 독립한 절단되고 분절된 신체들의 이러한 간극과 틈이 새로운 것을 생성하고 창조해 내는 원동력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조합과 배치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신체의 변용력을 레고의 부분조각들로 인지하고, 이러한 자율적인 부분성에 중점을 두어 ‘독신 기계’로 명명하였다.

26) 신승철, *op. cit.*, p. 134.

27) 조광제, *op. cit.*, pp. 193-194.

28) 서동욱, *차이와 타자*,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pp. 172-175.

어진 입, 가슴, 손, 온몸 등을 ‘얼굴화’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sup>29)</sup>. 얼굴이란 자아를 타자와 구별하는 정체성 상징의 기표이며, 얼굴성이란 사회화를 통한 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에 의해 이상화되어진 신체를 ‘얼굴성 기계’라 명명하고, 얼굴성 기계가 가지는 신체의 탈영토화는 얼굴 위에서의 재영토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생산의 결정권을 제거한 ‘결핍으로서의 욕망’인 얼굴성 기계가 자율적인 기관 없는 신체의 창조적 욕망을 소비를 통한 쾌락으로 상쇄시키려는 자본주의의 전략을 비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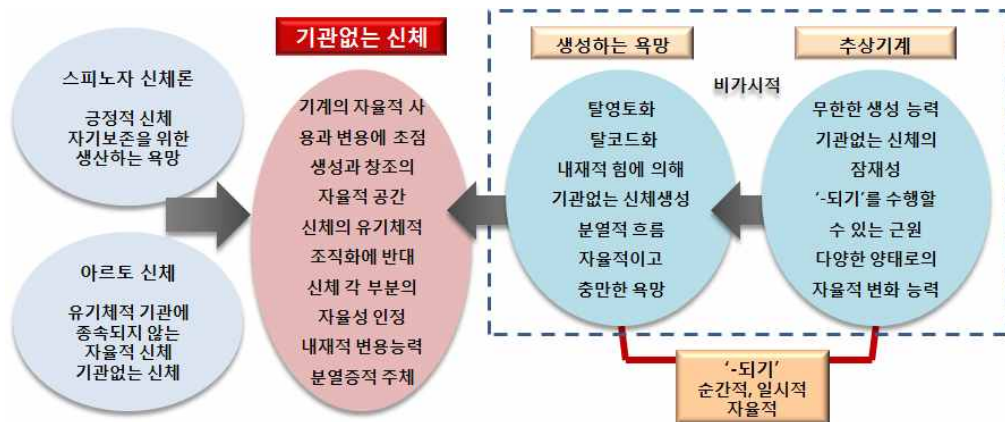
들뢰즈와 가타리는 자본주의의 진정한 소비 주체는 몸 전체의 특정 형태를 구조화 시키는 ‘얼굴성 기계’가 아니라, 자율적인 기관으로 결합되어진 부분으로서의 독립 주체인 ‘독신기계’<sup>30)</sup>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 과정에서 철저히 개별자로 행동하게 되는 자율적 소비 주체를 의미한다. 즉, 자본주의의 욕망 소비 주체로서 자유로운 변용능력을 가진 독신기계는 부분충동에 의한 파편적인 소비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이를 변형시켜 소통과 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재생산이 가능한 신체로, 자본에 구속되지 않는 미래의 자율적인 인간상을 예견하고 있다. <그림 1>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신체론을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Ⅲ. 자본과 결합된 현대 신체의 특성

한상연<sup>31)</sup>의 주장처럼 신체는 항상 스스로 권력화 되고 의미화 됨으로써 오히려 특정 권력이나 담론의 질서로 환원될 수 없는 역설적인 존재이다. 신체는 스스로 얼굴성을 수용하여 담론화 됨으로써 자연적인 신체의 실존(기관 없는 신체, 추상기계, 독신 기계)과 담론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중의 밀고자이며, 유기체적 통일성과 주체적 정체성으로 포획되어지지 않는 탈주의 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신체는 자본과 공조하여 새로운 미와 새로운 경제적 권력을 생산하는데 스스로를 내던진다. 본 연구에서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자본과 결합된 신체이론을 바탕으로 현대의 일상성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특성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 1. 욕망하는 기계

현대에는 어떤 시대보다 신체에 열광하고 특정 신체미에 환호한다. 대중매체나 대중영상매체의 급속한 진보, 유티커터스 환경은 미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고 일상화시키는 반면, 획일적인 미를 전파하고 세뇌시키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어진 신체는 몸을 생산을 위한 기능적



<그림 1> 들뢰즈와 가타리의 신체론.

29)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op. cit., pp. 333-356.

30) 이정우, *접힘과 펼쳐짐*, (서울: 거름, 2000), pp. 186-189.

31) 한상연, “문화적 담론과 몸1,” *철학과 현상학 연구* 29권 (2004), p. 44.



이고 도구적인 것에서 소비를 위해 표현적이고 장식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제 신체는 건강을 위한 관리나 운동이 아닌 아름다움의 대상 즉, 멋진 근육, 미끈한 다리, 풍만한 가슴, 탄력있는 엉덩이, 동안(童顏) 등의 부분적 특성으로 과편화되어 이를 신화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몸은 자아의 실체이며,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자아의 여러 표정들을 내포하고 있다<sup>32)</sup>. 따라서 가시적인 몸은 비가시적인 몸의 표현이며, 다양성을 내포한 자아의 기표이다. 비가시적인 몸은 다양한 욕망을 생산하거나 외부 욕망을 내면화하여 이를 가시적 몸에 각인한다. 이때 욕망의 생산과 수용에 관한 자율성은 자아에 속해 있다. 그러나 신격화 되어 있는 문화나 예술이 주도하는 특정 미적 양식은 현대의 자본과 결합하여 거부할 수 없도록 개인을 유혹하고, 자아는 어떤 비판이나 판단 없이 이를 환각적으로 수용, 자기규율방식을 통해 사회적 이상미를 획득하고자 한다. 몸주체인 자아가 몸객체인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강제, 억압, 학대, 감시하는 마조히스트적 방식은 이상화 되어진 신체를 통해 타인과 차별, 분리되고자 하는 권력이나 경제적 계층 생성과 관련된 욕망의 발현으로, 신체의 욕망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여 왜곡<sup>33)</sup>시킴으로써 자율적 능동적 신체를 유순한 암적 신체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체는 더 이상 생성을 욕망하지 않는다. 신체는 자신을 도구 삼아 새로운 소비 주체이자 소비 객체로 변화하며 지속적으로 욕망만을 추구하는 욕망하는 기체가 된다. 따라서 신체는 스스로를 통해 새로운 권력과 미를 창조해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텅 빈 신체이며, 자아를 타자와 구별하고자 욕망하는 과시증적인 암적 신체가 된다.

## 2. 새로운 에로티시즘의 강화

신체에 대한 광적인 관심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체를 해체하여 사이보그처럼 자유롭게 결합이 가능한 가변적 신체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전통적인 남성성, 여성성, 세대 간 차이 개념은 더 이상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은 새로운 자아,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패션이라는 매개체를 활발히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연기하는 자아<sup>34)</sup>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신체관리, 미용, 성형, 헬스 등이 일상생활에 밀접히 파고들면서, 신체는 스스로 변화를 욕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제 신체는 조형과 성형이 자유로운 표현 대상으로 변화되었고, 자아를 표현하고 매력을 발산하며 타인을 유혹하고 자아에 순응시키는 강력한 상징적 자본이자 권력이 되었다. 인간이 지닌 다른 여러 자질을 제쳐두고 키와 몸무게, 바디라인, 근육 등이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고, 아름답고 멋진 신체는 만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얼굴과 신체적 특성이 뛰어난 연예인들이 청소년들의 꿈이 되고, 어리고 예쁘고 귀여우며 날씬한 걸 그룹들이 중년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며, 젊고 힘이 넘치며 근육질의 예쁜 얼굴을 가진 아이돌 남성 그룹이 중, 장년층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들의 신체가 표현하는 새로운 에로티시즘이다. 이들의 신체는 미성숙함과 원숙함, 남성성과 여성성, 능동성과 수동성이 교묘히 결합되어 있는 양면적 기표이다. 동안과 김승철의 열풍이 동시에 불고 있는 요즘,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의 신체에서 나타나 어리고 순진한 미소년의 귀여운 얼굴에 차가운 인상과 표정, 운동으로 단련된 가슴 근육과 복근, 그을린 피부, 털 없는 매끈한 피부 등이 결합하여 분명 기존 신체 이미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요소들의 종합체를 형성한다. 이러한 신체 이미지의 모호함은 기존의 일방적인 남성적, 여성적 성적 특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에로티시즘을 해체시켜 다양한 특성과 이미지가 공존하는 복합적 에로티시즘을 창조하고 있다.

## 3. 물신적 대상으로 과편화

신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현대의 주체 형성과 관

32) 김기섭, “서양 미술에 나타난 신체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4.

33) 신승철, *op. cit.*, pp. 154-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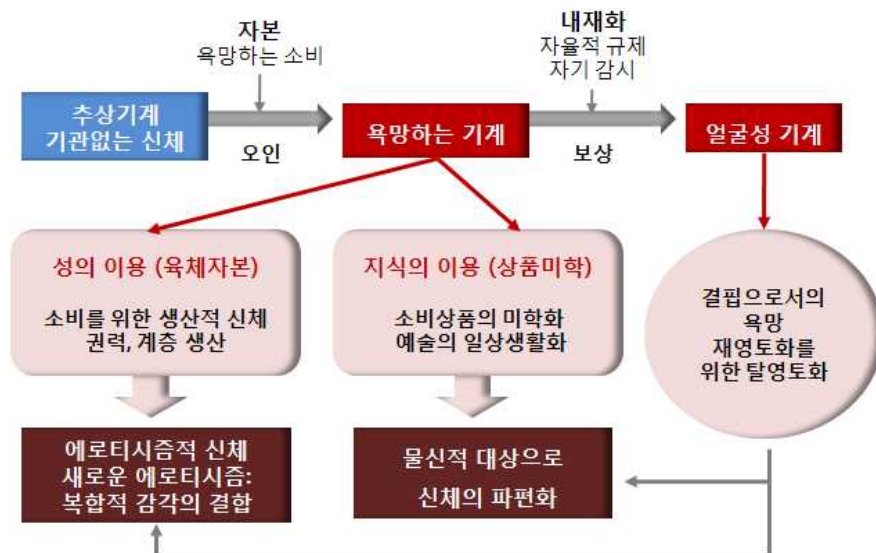
34) 양희영, 양숙희, *op. cit.*, p. 328.

련된 철학적 담론은 권력에 대한 복종도, 자본에 대한 지배도 아닌 존재 미학에 의한 자기창조를 주장하고 있다<sup>35)</sup>. 푸코의 후기 논의에서 나타난 자기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서의 자기 훈련, 자아의 욕망과 쾌락의 활용 등은 자기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주체화 양식이다. 따라서 신체에 대한 사회, 문화적으로 강요된 도식이 있을지라도 이를 자아가 수용하여 내면화하고 이를 자기감시와 자기규율화 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자율성이라는 것이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작금의 신체는 자기창조에 있어서 일정 정도 사회, 문화, 상업적인 집합적 영향을 받게 되며, 여기에 개인적 자율성이 가미되어 새로운 주체성, 정체성을 끊임없이 생성시켜 나가는 재영도화의 자율적 실천의 장인 것이다.

오늘날의 신체는 전체로서의 신체에서 신체 각 부분 부분으로 욕망이 이동한다. 욕망의 이동은 새로운 신체 파편들에 중심성을 부여하며, 이것에 의한 새로운 정체성, 즉 얼굴성이 획득되어진다. 택연의 초콜릿 복근, 유희의 꿀벅지, 이병헌과 정지훈의 가슴 근육 등 이제 신체의 특정 부분이 곧 정체성이며 새로운 미적 이상향이다. 이렇게 신체의 일부

분에 대한 관심은 신체 전체를 완벽한 이상적 미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의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정 부위의 관리와 성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후기 자본주의의 상품미학은 신체의 파편화된 부분의 무한한 잠재성과 경제성을 간과하고, 이를 자본과 결합시켜 새로운 소비대상으로 신체의 각 부분을 전위시켰다. 대중영상매체를 통해 파편화된 신체의 활용도는 부분 모델(손, 발, 다리, 엉덩이, 상반신, 하반신, 가슴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지만, 대중에게 급격하게 소구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파편화되어 물신으로 숭배되는 신체 부분에 대한 관심의 폭증에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의 신체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패션은 신체의 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은폐와 노출을 통해 신체의 일부분을 응시와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제 신체는 패션이라는 장치 없이도 스스로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물신화시킨다. 이러한 강조는 패션에 의해 수행되던 성적 특징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신체 부위의 매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신



〈그림 2〉 자본화 된 현대 신체의 특성.

35) 이영자, “몸 권력과 젠더: 푸코적 분석틀에서 본 날씬한 몸관리,” *한국여성학* 22권 4호 (2006), p. 211.

체의 모든 부위가 중심이자 주체로서 부상되었다. 신체의 파편화가 자본이 상품화하기에 훨씬 더 용이한 점을 인정하고서라도 이러한 움직임은 몸 자체의 자율성 획득을 위한 푸코의 ‘자기에의 배려’<sup>36)</sup>임을 일정 정도 감안해야 한다.

#### IV. 현대의 탈영토화된 패션

##### 1. 패션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고대로부터 의복은 신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형태와 구조를 변화, 발전시켜왔다. 인간의 자율성이 존중되던 시기에 의복은 인위적으로 신체 형태를 왜곡하거나 과장하기 보다는 신체의 자연미와 움직임을 의복 소재와 결합시켜 의복에서 유동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신체가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억압받고, 죄악이나 타락의 이미지와 관련되면서 부정적이고 열등한 대상으로 전락하였으나, 이를 통해 오히려 착용자의 지위나 계급, 경제적 능력 등을 상징하는 함의체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은 자연스러운 신체미의 표출보다는 인위적이고 가장되고 연출되어진 ‘인공적인 신체’를 구성하는데 활용되었으며, 신체에 종속된 하위 부속물이나 도구로서 오랫동안 간주되었다.

20세기 이후 패션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가 재고되어지면서 패션은 개인적인 선택과 착용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화적 산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의복은 사회적 몸으로서 사회의 시대정신이나 미적 이상향과 조화되어 특정 양식과 스타일, 룩을 형성하며, 인체 위에 표현되는 예술로서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미의식을 드러내는 심리적 발로로써 한 시대의 이상적 신체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다<sup>37)</sup>.

그러나 현대의 몸이 이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몸 자체의 자유로운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서 신체와 패션 사이에 형성되었던 기존의 종속적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제 인간은 의복에

의해 과장되거나 은폐되고 구속되었던 신체가 아닌 탈의되고 노출되어진 자연스러운 몸을 욕망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추구한다. 따라서 기존의 전체로서의 몸의 이상향은 몸의 각 부분으로 분절되고 특정 부위가 욕망의 대상으로 패티시즘(fetishism)화 되면서 파편화된 몸이 이상적 신체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패션은 신체의 외피, 보완책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구조와 공간에 대한 탐색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체와 객체의 전도, 중심의 상실, 타자의 부상으로 나타난 탈중심화 되고 분열된 자아개념은 패션이 더 이상 인간이라는 주체에 착용되어지는 종속적인 객체가 아니라 붙잡을 수 없는 욕망의 대상이며, 사회문화적 상징체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으로서의 생성적인 의미를 획득하였다<sup>38)</sup>. 현대 패션은 지속적으로 신체와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신체를 향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자기 초월적인 탈영토화의 특성을 지닌다.

##### 2. 탈영토화된 패션

연구자는 현대의 신체와 패션 사이에 새롭게 형성된 다양한 관계성을 조명하기 위해 상기에서 고찰한 신체 변화와 함께 패션의 변화를 신체와의 관련성 및 패션 구성 요소나 공간자체의 독립 및 자율성에 근거하여 다음의 네 가지 특성으로 분류, 고찰하였다.

###### 1) 대상성과 물질성의 표상

20세기 후반 이후 해체주의의 영향으로 패션에서는 신체와 패션 사이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탐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패션은 특정 신체 형태를 강조하거나 확대, 과장하던 것에서 신체를 왜곡, 변형시키는 표피적 매개체로 활발히 활용되었다. 이제 패션이 보여주는 신체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신체라기보다는 신체 자체의 물성과 부분적 형태, 파편화된 성적 특정 부위에 대한 냉소적이고 유머러스한 강조이다. 이러한 패션은 신체

36) Chris, Shilling, *몸의 사회학*, 임인숙 역, (서울: 나남출판사, 1999), pp. 92-97.

37) 권기영, 조필교, “현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신체이미지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8권 5호 (2000), p. 682.

38) 권정숙,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의 표현형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권 3호 (2004), p. 277.

의 유기체적인 생명성을 사상하고, 대상으로서 물질성이 강조된 신체를 표현하는데, 주로 몰딩 방식을 활용한 바디 캐스팅을 이용하여 신체를 딱딱하고 차가운 물질로 변화시켜 인위적으로 구성되고 조형되어진 신체를 보여준다(그림 3). 이러한 신체는 패션을 장식하는 외피인 동시에 중심성을 상실한 체 패션 위로 노출되어진 탈중심화 된 신체들은 유하며, 신체 자체가 패션을 표현하고 장식하기 위한 시뮬라크르(simulacre)<sup>39)</sup>의 대상이자 공간으로 전위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패션이 표상하는 노출되어진 신체는 상반신이나 뼈대, 특정 성적 부위에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체성으로서의 신체를 파편화시켜 신체와 패션 사이에 공고히 결합되었던 주체와 객체 관계, 유기적 결합성을 전도시키고자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패션 소재가 지닌 물성 즉 직물, 플라스틱, 금속 등의 특성을 더욱 강조하여 전체로서의 신체가 가진 생명성과 대비시키고, 파편화되고 분절된 신체 부위의 물질성과 대상성을 강조한다. <그림 4>는 신체의 특정 성적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화려한 색상의 조화로써 과도하게 장식하여 시선을 이 부위로 집중시켜 관음의 대상이자 에로틱한 성적 대상으로서의 수동적 신체인

텅 빈 신체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5, 6>은 패션이 스스로의 대상성과 물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면적인 종이로 제작되어진 가짜 의복은 착용자의 생명성조차도 박탈하여 종이 의상을 입는 종이 인형으로 대상화 시키고 있으며(그림 5), <그림 6>의 엉덩이 부분을 강조한 바디마네킹의 형상으로 제작된 의복은 선명하고 굵은 라인을 이용해 인공적이고 도구적인 마네킹의 대상성과 물질성을 신체로 확대시켜 인체를 마네킹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원래의 신체 라인과 형태를 왜곡시키고 있다.

2) 자기 초월적인 도구적 패션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영역과의 자율적인 접촉에 의해 본래의 용도와 형태, 구성, 공간, 기능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구성체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패션의 자기 초월성’에 주목하였다. 과학기술의 급진적인 발전과 다양한 영역이 상보적 효과를 창출하는 하이브리드 기술의 진보는 형태적 표현 특성으로서 신체에 종속되던 관계가 아닌 신체를 보호하고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며, 신체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구적 기능으로 패션의 역할로 전환하고 있다. 도구적 패션은 기능주의 패션의 부활을 선도



<그림 3> Alexander Mac-Queen. 2007 F/W.



<그림 4> Victor & Rolf. 2003 S/S.



<그림 5> John Galliano. 2000 F/W.



<그림 6> Commes des Garson. 2008 F/W.

39) 시뮬라크르: 들뢰즈는 인간 무의식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표면이며, 표면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시뮬라크르 라고 하였다. 즉, 이것은 인간 욕망의 변화가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면효과로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와 패션 모두를 표면효과가 집적적으로 드러나는 시뮬라크르로 규정하고 있다.

양희영, 김소영, “바디페인팅을 이용한 광고에 나타난 들뢰즈의 되기 현상: 들뢰즈의 시뮬라크르 개념을 중심으로,” 복식 57권 7호 (2007), pp. 56-57.

하며 유동적이고 말랑말랑한 직물로 구성된 기존의 패션 개념이 아닌 첨단 장치와 장비로 무장한 ‘입는 기계’인 기계적 패션과 최첨단 기술이 응집된 신소재를 이용한 패션을 의미한다. <그림 7>은 실과 천을 전도성 섬유로 만들어져 체온과 혈압, 맥박, 심전도 등이 바이오 시그널 모니터를 통해 감지되어 무선으로 지정 병원에 연결되어 착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 조짐이 발견되면 이를 본인에게 즉각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바이오 셔츠이다.

현대 패션은 신체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자유로운 조형성을 획득하거나 오히려 본래의 기능을 강화, 확대하여 도구로서의 패션성을 강화하는 상반된 경향이 동시에 나타난다. 현대 패션이 보여주는 도구성으로의 환원은 패션의 전통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오히려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기계 되기, 건축 되기, 장치 되기’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기관 없는 신체이다. 따라서 끝을 알 수 없는 패션의 기능적 진화를 위해 패션은 외적으로는 활동성과 이등성에 효과적인 가볍고 가변적이며 다층적인 공간구성을 위해 에어리(airy)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즉, 보다 얇고 가벼우며 방한성과 통풍성이 뛰어난 소재를 이용하여 구조적인 선과 디테일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그림 8>은 비, 바람, 더위, 습도 등의 자연환경에 대비해 의복 내부를 항상 쾌적하게 유지시켜주는 얇고 가벼운 운동복으로 2008년 스티라 맥카트니의 디자인이다. <그

림 9>는 위성항법장치, 전자스키 패스, 체온 센서기,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신체를 데우는 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는 필립스의 스노우 보드나 스키 스포츠용 의복이다. 첨단 소재로 제작된 미니멀한 패션은 다양한 ‘되기’가 가능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패션의 의피와 내부 공간을 단순하게 구성한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유기체의 유기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복 착용시 착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생체적 특성을 구현하고 있다. 생체모방(Bio-Mimicry) 패션이라 명명되는 이것은 이미 고기능성 소재를 통해 다양한 감성을 만족시키는 패션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펠프스와 박태환의 상어 지느러미 구조를 활용한 수영복(그림 10)이나 몰포나비의 빛에 의한 다양한 색 표현 특성을 활용한 편광 소재로 제작된 의복은 파편화된 주체로서 부분적 특징인 상어비늘과 나비날개의 표면구조를 중심으로 부상시켜 패션의 ‘상어 되기, 몰포나비 되기’를 실현하고 있다.

### 3) 독립적 공간 조형체(건축적, 무정형적)

마이클 켈리(Michael Kelly)는 패션은 정의상 인간의 신체 조건에 따라 형태가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속적으로 몸으로 귀결되는 예술이라 언급하였다<sup>40)</sup>. 그러나 현대 패션은 이러한 정의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정도로 신체의



<그림 7> 바이오 셔츠.  
2006.



<그림 8> Adidas. Stella  
McCartney, 2008.



<그림 9> 필립스. 테크노  
서퍼, 2002.



<그림 10> Spido. 박태환  
수영복, 2007.

외형을 일탈하고 신체에 종속된 기능과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 조형체로 창조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명확한 형태나 구체적인 형상으로 분류할 수 없는 패션이나 신체에 종속되어 신체 형태를 재현, 과장하던 원래의 패션 공간의 범위를 넘어 건축적으로 확장되어지는 패션을 독립적인 공간 조형체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지속적인 욕망을 생산하는 욕망하는 기계로서의 패션은 능동적인 변용 능력을 통해 분절되고 파편화된 부분들이 자유롭게 결합하고 해체하면서 패션이 지닌 다양한 관계성을 끊임없이 개발해낸다. <그림 11>은 패션의 장식적 디테일 요소인 리본을 이용하여 확대, 재구성한 건축적 디자인으로, 커다란 리본으로 포장된 신체는 원래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자연적인 신체로서 관심을 획득하지 못하며, 신체 외부를 둘러싼 거대한 리본은 중첩에 의한 조형미를 드러낸다. <그림 12>는 가죽과 플라스틱 프레임 결합하여 건축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기하학적 구조물로 결합되어진 어깨와 소매부분은 동일 방식으로 구성된 마스크와 함께 신체를 기계적 이미지로 변화시키며, 레고와 같은 자율적인 결합 해체가 가능한 가변적인 독립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자율적인 구성 요소, 비구성 요소로 결합되거나

병치, 혼합, 복합되어진 기관 없는 패션은 스스로 변화를 욕망하고 새로운 형태를 재생산하는 욕망하는 패션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욕망하는 기계로서의 욕망하는 패션은 복합적인 구조와 다층적인 형태를 동시다발적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특정 형태나 구조로 환원이 불가능한 다의성, 복합성을 띤다. 이러한 특성은 형태와 구조, 공간적 특징이 상이한 요소들 간의 이접에 의한 것으로, 결합 시 많은 틈이나 간극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완성되고 결정화된 특정 형태로 설명할 수 없는 무정형적 조형체로 나타난다. <그림 13>은 하늘과 바다, 야자수가 어우러진 그림의 종이를 자유롭게 구겨서 상의의 뷔스티어로 활용하고 있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2010년도 작품이며, <그림 14>는 폼 데 각송의 2009 F/W 컬렉션으로 무수히 많은 러플로 구성되어진 의복은 소매의 확장은 물론 전신을 지나 얼굴까지 연장되고 흰색의 걸린 가발과 머리부분에서 결합하여 착용자를 은폐함은 물론 거대한 깃털이나 솜뭉치로 변화시킨다. 라깡이 걸땀으로, 들뢰즈와 가타리가 화이트 홀로 상정한 이러한 틈은 새로운 패션으로의 끊임없는 생성을 촉발하는 자유로운 욕망의 흐름이자 탈주의 선이다.

#### 4) 탈중심적 패션

현대 패션이 신체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하게 된



<그림 11> Victor & Rolf.  
2005 S/S.



<그림 12> Gareth Pugh.  
2007 S/S.



<그림 13> Martin  
Margiela. 2010 S/S.



<그림 14> Comme des  
Garçons. 2009 F/W.

40) Machael Kelly, *Encyclopedia of Aesthetic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8), Vol. 12, p. 154, 재인용, 이신영, 김혜영,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몸’ 양식의 탈고정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복식* 53권 1호 (2003), p. 59.

데에는 패션 구성 요소들의 해체와 전복, 병치, 왜곡, 변형에 의한 신체성의 파괴에 기인한다.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패션이라는 ‘전체’의 완성에 결합되었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은 전체성과 유기성, 완벽성, 결정성의 해체로 인해 자율성을 획득하고 위계성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구성 요소들 뿐만 아니라 패션 제작에 있어서 부수적인 재료로만 인식되었던 다양한 부자재와 디테일, 패스너(fastener)와 같은 비구성적 요소들이 중심 요소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패션 공간과 구성방식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실험하는 현대의 혁신적인 디자이너들은 디테일이나 비구성적 요소만으로 의복 전체를 구성하였고, 이것은 오히려 독창성, 조형성, 반복성, 탈중심성으로 인해 패션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림 15〉는 재킷의 칼라 부분을 셔츠 칼라와 앞 중심선의 반복적인 결합을 통해 러프칼라처럼 변형시켜 새로운 구조적, 형태적 미를 창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16〉은 의복의 장식 요소로 디테일이나 구성 요소 일부분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 원피스 전체를 바디스 앞부분에 부착시켜 전체와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전도시키고 위계를 해체하고 있다. 〈그림 17〉은 의복의 각 부분이 분화되지 않고 하나의 평면으로 구성된 후드 달린 망토로, 의복색과 대조적인 흰색의 라인 테이프를 이용해 앞 중심, 칼라, 소매, 주머니 등 각각의 구성 요소를 비사실적으로 분화시켜 의복구성시 나타나는 공간의 다층성을 하나의 평면으로 통합, 환원시키고 있음

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8〉은 카드를 자유롭게 결합하여 구성된 조각로 마르지엘라의 2006년도 작품이다. 이것은 의복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일상 소재의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르지엘라는 이 외에도 목걸이, 단추, 음료수 병뚜껑만으로 구성된 의복을 제작하여 소재 사용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현대 패션은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해체하여 패션구성 요소들 자체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으며, 기관 없는 패션의 다양성을 실험하는 파편화된 요소들은 생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합하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명명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신기계’라 할 수 있다. 현대의 탈영토화된 패션은 신체의 경계를 넘어 창조적 자기구성체로서 진화하고 있다. 이제 패션은 신체와 더불어 스스로의 구조와 공간을 새롭게 병치시키는 기관 없는 패션이며,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변화를 욕망하는 독신기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림 19〉는 기관 없는 신체의 자본화와 탈영토화 된 패션을 간단한 다이어그램으로 비교 설명하고 있다.

## V. 결 론

몸은 물질로 이루어진 영역이면서 정신과 물질이 상호 결합되어 새로운 것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변화시키는 창조의 장이다. 몸은 패션을 형성시켰고 변화시켰으며, 20세기 이후 몸에서 독립시켜 단일 조형성을 지닌 독립적 공간으로 진화시켰



〈그림 15〉 Victor & Rolf.  
2003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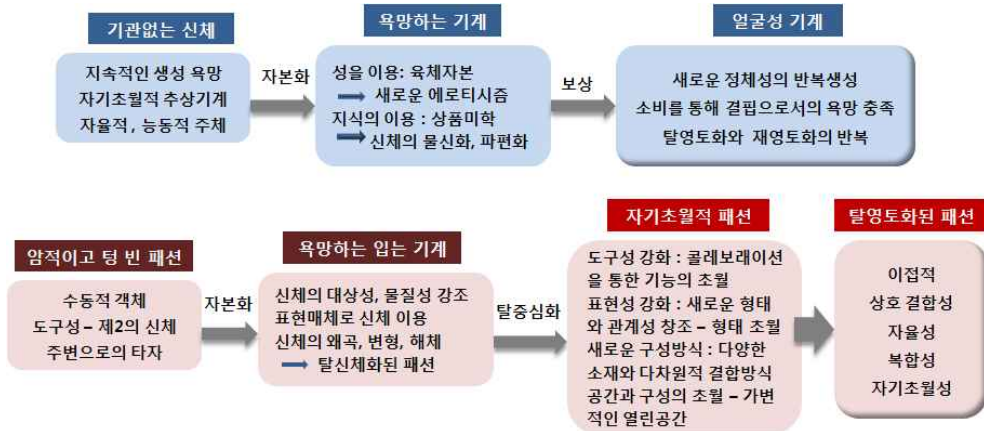
〈그림 16〉 Commes des  
Garson. 2007 F/W.



〈그림 17〉 Commes des  
Garson. 2009 F/W.



〈그림 18〉 Martin Margiela.  
2006 S/S.



〈그림 19〉 기관 없는 신체의 자본화와 탈영도화된 패션.

다. 몸에 대한 패션의 종속적 관계는 신체를 피복하고 과장하거나 과시하는 것에서 신체의 외형을 왜곡하고 은폐시키는 것으로 역전되고 있다. 오늘날 몸이 정신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고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지되는 것처럼 패션 또한 자체의 가변적이고 창조적인 영역을 인정받아 신체로부터 독립하고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조직화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성하는 욕망으로서의 기관 없는 신체는 신체의 자율적 욕망에 따라 신체 각 부분을 자유롭게 파편화, 새롭게 병치시켜 부분요소들을 새롭게 중심화시킨다. 이렇게 특정 부분이 강화된 신체는 현대의 상품미학과 관련되어 성적 특질이 강화된 에로티시즘의 상징으로서 페티시적 대상이며, 남성성과 여성성, 미숙함과 성숙함이 교묘하게 결합되어진 복합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미적 욕망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화적으로 반강제되어진 미적 기준에 대해 자본의 보상을 기대하는 수동적 수용과 이를 위해 자율적 자기규제를 수행하는 능동적 적응의 결과인 ‘욕망하는 기계’, ‘얼굴성 기계’로서 나타난다.

탈영도화된 현대 패션은 유기체적인 생명성을 상실하고, 대상으로서 물질성이 강조된 신체와 패션을 표현하는, 1) 대상성과 물질성의 표상, 신체의 움직임이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로서 본래의 기능이나 역할, 형태를 초월하여 패션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2) 자기 초월적인 도구적 패션, 패션과 신체와의 위계성이나 관계성을 일절 해

체시켜 독립적인 건축적 공간관계나 무정형적 공간구조로 파악한, 3) 독립적 공간 조형체, 패션구성 원리나 요소들의 위계성을 해체하여 탈중심적이고 자유로운 이접 관계형성을 가능케 하는, 4) 탈중심적 패션으로 고찰되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자기보존의 욕망을 생성으로 이끄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충만한 신체를 ‘기관 없는 신체’라 하였고, 권력이나 자본과 결탁하여 본래의 자율성, 창조성, 능동성을 상실한 채 소비에 대한 물신적인 욕망 만을 상징하는 현대의 신체를 ‘욕망하는 기계’로, 사회적 이상미를 대변하는 신체를 ‘얼굴성 기계’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자본에 의한 신체의 점유와 훼손, 소비의 늪에서 빠져나와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신체로 ‘독신기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독신기계는 니체가 주장한 초인처럼 어떤 외적 권력(정치, 종교, 이데올로기, 신화)이나 자본에 포섭되지 않고 자체의 생성능력을 향상시켜 스스로 진화하는 존재로, 휴머니즘을 근간으로 탄생된 미래의 새로운 인간상일 것이다. 신체의 속박은 정신의 구속으로, 정신의 속박은 신체의 복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과 신체가 통합된 복합적인 존재로서 인간과 신체에 대한 탐구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한 독신기계로서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탐구와 고찰이 후행 연구에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기관 없는 신체와 탈영도화된 패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은 소비와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상품화 되어진 부정적인 신체나 패션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권력과 계급, 욕망을 스스로 생산하는 주체로서 다른 대상과 비위계적이며 자율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상징적 자본이자 생성하는 욕망으로서의 현대 신체와 패션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을 드러내는데 일조하리라 사료되어진다.

### 참고문헌

- 권기영, 조필교 (2000). “현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신체이미지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8권 5호.
- 권정숙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의 표현형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권 3호.
- 김광기 (2008).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이방인.” *사회이론* 2008 봄/여름호.
- 김기섭 (1999). “서양 미술에 나타난 신체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7). “여성주의와 니체, 그리고 푸코의 새로운 만남.” *한국여성철학* 7권.
- 김은희 (2002). “복식에 표현된 여성의 몸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효 (2008). “미셸푸코의 신체관 연구.” *대한체육학회지* 47권 4호.
- 김중주 (2001). “라캉과 욕망.” *시학과 언어* 2권.
- 박신미, 이재정 (2008). “20세기 패션디자인의 건축적 패러다임 특성 고찰.” *복식* 58권 2호
- 박현신 (2003). “20세기 후반 패션의 신체 부재와 탈재현 현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동욱 (2000). *차이와 타자*.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신승철 (2004). “들뢰즈/가타리의 욕망론과 신체론에 대한 고찰.” *철학·사상·문화* 창간호.
- 양희영, 김소영 (2007). “바디페인팅을 이용한 광고에 나타난 들뢰즈의 되기(becoming) 현상.” *복식* 57권 7호.
- 양희영, 양숙희 (2006).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건축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복식* 56권 7호
- 양희영, 양숙희 (2006). “현대 광고에 나타난 남성 신체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권 2호.
- 양희영, 양숙희 (2009). “21세기 복합적인 패션공간에 나타난 탈경계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7권 4호.
- 오생근 (2005). “데카르트, 푸코, 들뢰즈의 육체.” *성평등연구* 9권.
- 윤수정, 김민자 (2007). “순수미술과 패션속의 물질성의 표현과 무정형성 경향.” *복식* 57권 6호
- 이광래 (1995). *미셀 푸코*. 서울: 민음사.
- 이민선 (2001).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신영, 김혜영 (2003).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몸’ 양식의 탈고정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복식* 53권 1호.
- 이영자 (2006). “몸 권력과 젠더: 푸코적 분석틀에서 본 날씬한 몸관리.” *한국여성학* 22권 4호.
- 임은혁 (2007). “복식에 표현된 몸의 재현성과 비재현성.” *복식문화연구* 15권 4호
- 임은혁 (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몸의 파편화.” *복식* 57권 6호
- 임은혁 (2007).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의 미학: 몸의 평면화를 중심으로.” *복식* 57권 1호
- 임은혁 (2007). “탈신체적 패션디자인에 관한 고찰-몸과 유리된 고정공간의 형성을 중심으로.” *복식* 57권 4호
- 임흥빈 (2009). “미적 실존의 조건들.” *철학연구* 36권.
- 전경갑(1999). *욕망의 통제와 탈주: 스피노자에서 들뢰즈까지*. 서울: 한길사.
- 조광제 (1993). “몸, 욕망 그리고 권력.” *한국철학사상연구* 4권 3호.
- 최유진 (2009).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에 대한 연구.” *복식* 59권 9호.
- 한상연 (2004). “문화적 담론과 몸.” *철학과 현상학연구* 29권.
- 허정선, 금기숙 (2004). “패션아트에 나타난 몸의 왜곡과 변형.” *복식* 54권 4호.
- Bradoc, S. E. and M. O'Mahany (2002). *테크노 텍스타일*. 허성희, 김정규 역. 서울: 예경.
- Bradoc, S. E. and M. O'Mahany (2004). *스포츠 텍크*. 차임선 역. 서울: 예경.
- Deleuze, G. and F. Guattari (2003). *천개의 고원*. 김

- 재인 역. 서울: 새물결.
- Etienne, B. (2005). *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역. 서울: 이제이북스.
- Shilling, C. (1999). *몸의 사회학*. 임인숙 역. 서울: 나남출판사.
- “Collections,” *firstView* [online fashion magazine] (2001~2010년 [2009년 11월 15일, 2010년 1월 23일, 2010년 2월 20일, 2010 3월 5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firstview.com/collection/>
- “Detachable Clothing,” *YANCO DESIGN* [magazine online] (2008년 11월 5일 [2010년 1월 23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yancodesign.com/catagory/>